

Japan Weekly Digest

2012. 6. 09 ~ 2012. 6. 15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일본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샤프, 신 경영전략 발표
- 내년도 일본의 자동차 생산대수, 과거 최고 전망
- 미쓰비시케미칼, 에틸렌 설비폐기로 탈 범용품화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대한일경제협회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① 주간 경제 초점 : 일본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

- 일본경제신문(2012.6/14)에 의하면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엔고 요인의 가세 등으로 일본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

□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15개 품목의 수출경쟁력 약화

- 주요 30개 품목의 2011년 경쟁력 지수를 보면, 리먼 쇼크 이전인 2007년에 비하여 통신기기, 의약품, 컴퓨터 등 15개 품목이 저하
- 특히, TV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이는 신흥국과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, 엔고의 악영향이 크기 때문임
- 국제경쟁력 지수(수출-수입/수출+수입)를 2007년과 2001년을 비교해 보면,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품목으로는 그 밖에 플라스틱, DVD 등의 기록매체, 가전 등을 들 수 있음

□ 수출경쟁력의 약화 시기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

- 2001년부터 10년간 추이를 보면,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품목별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
- 첫 번째 유형으로 가전, 컴퓨터, 의약품 등 7개 품목은 리먼 쇼크 이전부터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, 통신기기는 2007년에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
- 두 번째 유형으로 기록매체 등 4개 품목은 리먼 쇼크 직후 2008년~2009년 기간 중 경쟁력이 약화
 - 특히 TV는 한국기업 등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, 2004년 약 5300억엔 이었던 수출이 2001년에는 1/6수준인 900억엔으로 감소
 - 한편, 수입은 4500억엔으로 약 2.5배 증가. TV의 내수판매는 지상 디지털방송 이행 후 수요 감소로 부진에 빠져 국제경쟁에서도 열세에 몰림
- 세 번째는 2010년 이후 고전하고 있는 유형으로, 철강과 플라스틱은 금융위기 직후는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았으나, 엔고 기조 정착으로 타격을 받음
 - 중전기기, 비철금속은 리먼 쇼크 이전보다 경쟁력은 높아졌으나 2010년부터 저하되기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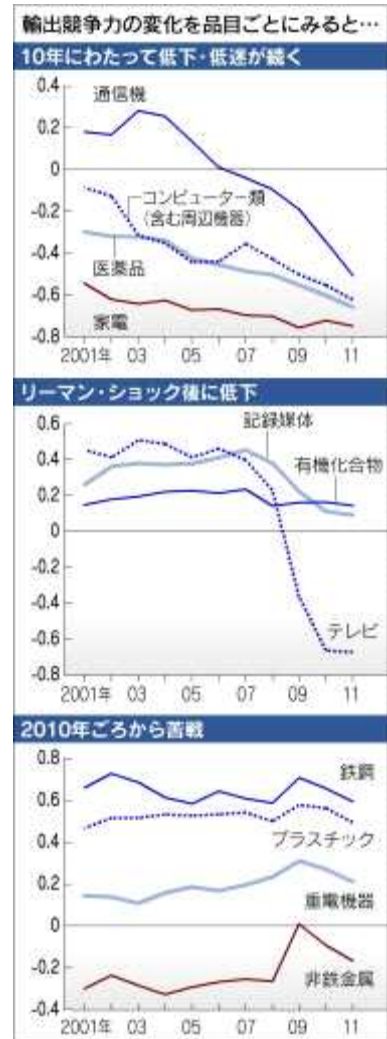
□ 30개 품목 중 광학기기 등 11개 품목은 리먼 쇼크 이후 수출경쟁력 강화

- 안정된 수출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중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공작기계 및 하역기계 등임. 컴퓨터부품이나 음향·영상기기부품도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
- 자동차의 경쟁력은 리먼 쇼크 이전 2007년보다는 낮으나, 2001년 수준은 상회하고 있음. 건설·광산 용기계도 2007년과 비교하면 낮아졌으나 경쟁력은 높은 수준임
- 주요 30개 품목 중 리먼 쇼크 이전보다도 수출경쟁력이 강화된 것은 과학광학기기 및 전기계측기 등 11개 품목. 고무제품, 금속제품 등 4개 품목은 2007년과 거의 같은 수준임

□ 시사점

- 일본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품목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경제성장을 지탱해 왔는데, 이들 수출산업의 퇴조는 새로운 성장모델 구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으로 물고 있음
- 경쟁력이 약화된 가장 큰 원인은 신흥국과의 치열한 가격경쟁에서 엔고라는 직격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만큼, 일본의 경험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·성장 모델 구축 못지않게 비용·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음



출처: 일본경제신문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□ 샤프, 신 경영전략 발표 : 홍하이와 중국에서 공동사업

- 샤프가 8일 발표한 경영전략에서 자본을 제휴하고 있는 대만의 홍하이정밀공업그룹과 스마트폰의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함. 중국에 공급할 스마트폰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생산은 홍하이에 위탁
- 액정 패널 주력거점인 사카이공장에서 홍하이에 패널 공급시기를 7월로 단축, 홍하이와 제휴를 통해 경영회복에 박차를 가할 방침
 - 6월말부터 홍하이와 공동운영하는 사카이공장의 당초 계획은 10월부터 생산량의 50%를 홍하이가 구입하기로 하였으나, 이를 7월로 앞당김으로써 TV 판매부진으로 현재 30%에 그치고 있는 가동율을 90%까지 끌어올릴 계획
- 스마트폰의 공동개발과 생산위탁은 2014년 3월부터 개시. 전자기기 수탁제조서비스(EMS) 세계 수위기업으로서 저비용의 생산노하우를 가진 홍하이와 제휴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약 13000엔~56000엔대의 가격으로 삼성전자 등을 앞지르겠다는 목표임
- 중국사업에서 홍하이가 중국·성도에 계획 중인 중소형 액정패널 공장에 샤프가 최첨단기술을 제공하는 방안도 최종 조정중임
- 또한 사카이공장 운영회사인 샤프디스플레이프로덕트(SDP)에 대형액정패널의 사업부문을 7월에 이관할 계획임

□ 내년 일본의 자동차 생산대수, 최고치 전망

-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승용차메이커 8사의 내년도 세계자동차 생산대수는 5년 만에 최고를 갱신할 전망이다
- 일본 자동차 각사의 내년도 계획생산대수 합계는 2,600만대로 금년도 생산대수를 약 16% 상회
- 중국, 인도, 멕시코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현지생산을 확대,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생산정체 등으로 잃어버린 세계시장을 되찾겠다는 계획임

- 그러나 소형차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대신중국 판매용으로 개발한 저가 자동차 투입을 개시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, 이익은 리먼 쇼크 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
- 세계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자동차 각사들은 수익확보를 위해 증산과 병행하여 부품의 공통화 및 개발방식의 개선 등에 의한 효율화를 서두르고 있음
- 미국의 전문조사기업인 IHS오토모티브에 의하면, 2008년 일본자동차 8사의 세계시장점유율은 31.7%. 지진과 태국홍수의 영향으로 2011년에는 26.9%로 저하되었으나, 2012년에는 28.6%로 회복될 전망이다

□ 미쓰비시케미컬, 에틸렌 설비폐기로 탈 범용품화

- 미쓰비시케미컬홀딩스가 11일 가지마 콤비나트 에틸렌설비 1기를 2014년에 폐기한다고 발표. 중동 및 중국에서의 설비 증강과 엔고로 인한 경쟁력 상실 등이 그 배경임
- 일본제조업의 성장을 지탱해온 핵심 소재의 설비 폐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스틸렌모노머, 염화비닐수지 등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제품들을 정리해왔음
 - 특히 에틸렌은 의류나 가전제품의 부품 등 여러 가지 제품의 원료가 되는 이른바, 석유화학의 쌀로서 철강과 함께 일본의 고도성장을 지탱해 왔음
- 따라서 이번 에틸렌 설비폐기 결단도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국내수요의 축소와 엔고, 고유가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간설비라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임
-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대신, 신규 사업분야에 비중을 높일 계획으로 리튬전지의 주요 4개 부재(정극재, 부극재, 절연막, 전해액 등) 모두를 해외 사업화하여 생산능력 증강투자를 계속할 방침임
 - 이에 더하여 현재, OLEL조명과 LED용 고효율기판의 본격적인 양산화를 준비하고 있으며, 총 성장투자 규모는 연간 500억~600억엔에 이를 전망

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오카상증권	2012.6.12	증권	한국/대신증권	업무제휴/투자신탁의 공동개발·판매 및 M&A지원
동해동경FH	2012.5.12	증권	싱가포르/필립시큐리티	업무제휴/주식거래시스템 도입 및 정보제공 협력
동센리스	2012.5.12	리스	미국/CSI리싱	업무제휴/중남미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·산업기기의 리스 서비스 제공
일본상공회의소	2012.5.12	중소기업	중국	사업지원/견본시, 「일·중교류박람회」 전시회참가비 지원
미쓰비시중공업	2012.5.12	조선	인도/라센&도브루	자본제휴/합작투자
야마자키마작	2012.5.12	공작기계	한국	FTA활용/한·미FTA를 활용, 미국공장에서 중소형선반을 한국에 수출
캐논	2012.5.12	디지털카메라	브라질	직접투자/공장건설, 투자규모 2억1000만엔
동해리화	2012.5.12	스윗치제품 및 세큐리티 제품	인도네시아	직접투자/공장건설, 투자규모 약 27억엔
신생은행	2012.5.12	금융	영국	직접투자/송금부문 매수, 매수가 10억엔 미만
히타치제작소	2012.5.13	발전설비 보수서비스	독일/쿠셀폰에너지	직접투자/매수가 수입억엔 예상
다이킨	2012.5.13	에어컨	중국	직접투자/기존공장의 생산능력, 투자규모 약 50억엔
미쓰이물산·싱크텔	2012.5.13	휴대전화	대만/제너럴모바일	자본제휴/약 30% 출자
스미토모상사	2012.5.14	공업단지판매	캄보디아/공단, 프놈펜SEZ의 개발회사	판매제휴/일본기업을 대상으로 공업단지 판매
이토츠테크솔루션즈	2012.5.15	정보시스템 구축·판매	태국/넷밴드컨설팅	자본제휴/45% 출자
오사카가스·미쓰비시상사샤프	2012.6.15	태양광발전소	캐나다	직접투자/발전소 건설, 공동 운영, 총투자규모 350억엔

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경제사회비전 : 가격경쟁에서 가치창조로』 경제산업성, 산업구조심의회, 6월15일

*출처: 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sankoushin/shinsangyou/report_002.html

(2) 『한·중·일FTA에서 주목되는 국제규격화전략』 다이와종합연구소, 6월12일

*출처: <http://www.dir.co.jp/publicity/column/120611.html>

(3) 『일본의 FTA와 TPP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6월12일

*출처: <http://www.iti.or.jp/kikan88/88ishikawa.pdf>

(4) 『일본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두터운 중간층 부활』 내각부, 6월12일

*출처: http://www5.cao.go.jp/keizai1/deflation/2012/0608_05-1_chukansou.pdf

(5) 『지역이 창출하는 21세기형 국제분업의 다이나미즘 :성장전략으로서 자유화』, 외무성, 6월14일

*출처: http://www.mofa.go.jp/mofaj/press/pr/gaikou/vol9/pdfs/gaikou_vol9_23.pdf

(6) 『한·중·일FTA의 의의와 과제 : 성장시장 아시아를 중심축으로 전개하는 통상교섭』 21세기정책연구소, 히타치종합계획연구소, 6월15일

*출처: http://www.hitachi-hri.com/research/organ/pdf/vol6_4_5.pdf

(7) 『기업경영자원에 의한 일본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분석』 전력중앙연구소, 6월19일

*출처: <http://cripi.denken.or.jp/jp/serc/discussion/download/12005dp.pdf>